



# 북한의 시멘트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방안

홍 순 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 서 론

시멘트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인 동시에 철재, 목재와 더불어 건축 등 산업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 소재산업의 하나이다. 이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심한 공해 유발 산업,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제품의 수송비용과 물적 유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산업이기도 하다.

북한은 비교적 풍부한 원료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시멘트산업을 대표적인 건재산업으로 육성시켜 왔으며, 1963년에 설치된 정무원의 '건재공업부'를 통해, 건자재의 생산과 공급을 일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건재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라는 연설(1964)을 기념하기 위해 '건재공업절'을 지정하였는데, 북한에서는 해마다 이 기념일을 전후하여 시멘트와 유리 등 각종 건자재의 증산 다짐을 위한 행사를 가질 정도로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시멘트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통일이 될 경우에 북한지역의 건설 수요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북한의 시멘트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시멘트산업 정책의 추진과정

북한의 시멘트산업은 해방전에 건설된 해주, 승호리, 천내리, 고무산 등의 시멘트 공장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전후 복구를 위한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한 전역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5개년계획 기간(1957~1960)에는 시멘트 생산 능력 목표를 연간 100~150만톤으로 삼는 등 주요 국가적 사업으로 중점 육성하였다. 60년대에는 기존의 시멘트 공장들의 시설을 대폭 확장시켜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제1차 7개년계획 기간(1961~1970)엔 천내리시멘트공장의 생산능력을 80만톤으로 확장시켰다.

70년대에도 1973년의 순천시멘트공장 착공과 1974~1975년의 2.8공장 소성로 2기 증설에 이어, 1977~1978년에는 덴마크 및 일본으로부터의 설비 도입으로 북한 최대의 순천시멘트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시멘트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생산능력 목표도 6개년계획 기간(1971~1975) 중에 750~800만톤으로 확대시킨데 이어, 제2차 7개년계획 기간(1977~1983)에는 연간 1,200~1,300만톤으로 늘려 잡았으며, 제6차 당대회('80.10.10)에서는 80년대말까지 2,000만톤으로 신장시킬 것을 10대전망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3차 7개년계획 기간(1987~1993)에는 시멘트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는데, 계획기간의 최종 연도인 1993년의 생산목표를 2,200만톤으로 책정하고 이의 완수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순천시멘트공장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으로서, 북한에서 가장 현대적 설비를 갖춘 시멘트공장으로 알려진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도 바로 이 무렵에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은 기존 시멘트 공장들에서 새로운 소성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생산력을 제고시키려 하였고, 시멘트 공장 및 소성로의 증설공사도 추진하였다. 또한, 사리원, 개천지구에 새로운 원료에 의한 대규모 시멘트 생산기지의 조성도 추진하였고, 완충기(1994~1996) 과 업중 무역제일주의와 관련하여 시멘트의 수출증대를 그 주요 추진사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에너지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성과는 미흡하였다.

### 3. 생산능력과 생산량 현황

#### 가. 원료 수급현황

북한에는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의 평안남도의 순천, 황해북도의 봉산, 황해남도 해주, 함경남도의 운포 노동지구, 함경북도의 부령, 평양 등 전국 각

지에 약 1,000억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매장량은 약 14.9억톤으로, 한반도 전체 매장량의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은 전후 복구를 위한 시멘트 수요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회석 증산과 광산의 확장, 새로운 석회석 광산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석회석 생산량은 1963년에는 100만톤에서 1975년에는 684만톤에 달하였다.

석회석이 시멘트 생산원료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멘트공장도 주요 석회석 광산 인근에 건설되어 있다. 6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중도광산을 확장하여 고무산시멘트공장에 석회석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성산광산에서는 순천시멘트공장에, 부래산광산에서는 2.8시멘트연합기업소에, 홍원광산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그리고 은산광산은 은산시멘트공장에 각각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 나. 생산능력과 생산량 현황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967년까지만 해도 남한을 앞섰으나, 남한의 꾸준한 시설확장으로 1968년부터는 역전되었다. (<표-1>) 1969년부터 남한은 시멘트의 완전 자급화가 실현됨으로써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1998년말 현재, 북한의 생산능력은 남한의 19.5%인 1,202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이 1993년말까지 달성하기로 한 생산능력 확충목표

<표-1> 남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

(단위 : 만톤)

	1960	1965	1968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남한(A)	38.4	174.7	350.8	1,119.6	2,218.5	2,522.1	4,028.9	5,600.0	5,800.0	5,887.0
북한(A)	229.0	239.0	300.0	520.0	807.0	904.0	1,202.0	1,202.0	1,202.0	1,202.0
(A/B)	0.2배	0.7배	1.2배	2.2배	2.7배	2.8배	3.4배	4.7배	4.8배	4.9배

※ 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1997. 12.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1999. 8.

※ 주 : 남한의 생산능력은 크렁카 기준임.

〈표-2〉 남북한의 시멘트 생산량과 가동률

(단위 : 만톤)

		1989	1990	1992	1994	1996	1997	1998
생 산 능 력	남한(A)	3,082.3	4,028.9	4,798.1	5,600.0	5,800.0	5,887.0	6,169.2
	북한(B)	1,177.5	1,202.0	1,202.0	1,202.0	1,202.0	1,202.0	1,202.0
	(A/B)	2.6배	3.4배	4.0배	4.7배	4.8배	4.9배	5.1배
생 산 량	남한(C)	3,047.4	3,357.5	4,265.0	5,163.4	5,726.0	5,979.6	4,609.1
	북한(D)	510.0	613.0	474.7	433.0	379.0	334.0	315.0
	(C/D)	6.0배	5.5배	9.0배	11.9배	15.1배	17.9배	14.6배
가 동 률	남한	98.9%	83.3%	88.9%	92.2%	98.7%	101.6%	74.7%
	북한	43.3%	51.0%	39.5%	36.0%	31.5%	27.8%	26.2%

※ 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1997. 12, 1999. 11.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1999. 8.

한국양회공업협회, 「시멘트」, 1999. 6.

※ 주 : 1) 가동률(%) = (생산량/생산능력) × 100

2) 남한의 생산능력은 크렁가 기준이며, 1998년 생산능력은 산업은행 추정치임.

2,200만톤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써, '90년 이후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생산 능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북한은 80년대에 들어 30만ha의 간척사업, 20만ha의 토지개간, 남포갑문 건설 그리고 태천발전소 건설 등으로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여, 1990년에는 613만톤을 생산하였다. 특히 남포갑문 건설에는 80만톤의 시멘트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평양~원산간의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시멘트의 5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1990년을 정점으로 하여 1991년부터는 시설 노후화 및 전력난, 유류난 등으로 가동률이 저하됨에 따라,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가동률은 1990년 51.0%에서 1998년에는 절반수준인 26.2%로 하락함에 따라, 여타 산업시설과 마찬가지로 생산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동기간의 생산량도 613만톤에서 315만톤으로 감소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격차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북한의 생산

량은 남한의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2〉)

#### 4. 주요 시멘트 공장 현황

북한에는 10여개의 주요 공장과 100여개의 중소 규모 시멘트 공장이 있으며, 주요 공장은 순천, 평양, 봉산, 해주, 구장 등 석회석 광산이 인접해 있는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부지역 공장의 생산 능력은 총 960만톤으로 전체의 약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공장의 생산능력은 1,127만톤으로 거의 대부분인 93.8%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순천, 2.8, 고무산, 해주공장 등의 시설 개체와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8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는 1991년 4기의 소성로가 새로 건설되었고,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는 새 원료에 의한 대규모 시멘트 생산계획(연산 1,500만톤까지 증설) 및 새로운 소성방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이 보유하고



〈표-3〉 북한의 주요 시멘트 공장 현황

기 업 명	소 재 지	생산능력 (만톤)	키 른 수 (기)	주 요 생 산 품	
서 부 지 역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평 남 순 천	300	3	포틀랜드시멘트(금강표)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평 양	200	2	포틀랜드시멘트(상원표)
	- 2.8시멘트연합기업소	황 북 봉 산	160	8	포틀랜드시멘트
	- 해주시멘트공장	황 남 해 주	125	5	포틀랜드시멘트(사슴표)
	- 승호리시멘트공장	평 양	95	5	포틀랜드시멘트, 내화시멘트, 백색시멘트
	- 만포(8.2)시멘트공장	자강도 만포	60	2	포틀랜드시멘트
	- 구장시멘트공장	평 북 구 장	20	-	포틀랜드시멘트
동 부 지 역	- 천내리시멘트연합기업소	강원 천내리	80	4	포틀랜드시멘트, 슬레이트
	- 고무산시멘트공장	함 북 부 령	57	4	포틀랜드시멘트
	- 부래산시멘트공장	함 남 고 원	30	2	포틀랜드시멘트
	- 회령시멘트공장	함 북 회 령	19	-	-
	- 해산시멘트공장	양강도 해산	5	-	-
기 타		51	13		
합 계		1,202	48(추정)		

※ 자료: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산업」, 1995. 6.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1995. 11., p. 524.

있는 키른(kiln) 수는 3개 연합기업소의 13기, 해주와 승호리 공장의 10기를 포함하여 총 48기인데, 1기당 평균 생산능력은 25만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1995년 현재 48기(건설 44기, 습식 4기)의 키른을 보유하고 있는데, 1기당 생산능력은 116.7만톤에 달해, 북한의 4.7배에 이르고 있다.

시멘트공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각 300만톤과 2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순천과 상원의 시멘트연합기업소이다.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는 1973년말 일본 미쯔이상사와 덴마크의 F. L. Smidth사로부터 설비를 도입하여 착공 4년만인 1977년에 완공을 본 북한 최대의 시멘트공장이다.

동 기업소의 생산품은 다른 공장 제품과 구별해서 '금강'이라는 상표로 남포항을 통해 동남아와 중국 등 인근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1997년 8월 29일에 3호 소성로를 개건하였는데, 이 소성로는 1978년 6월에 설치된 소성로의 노후화로 인해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제품의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스위스 홀더뱅크사의 자금 및 기술지원을 받아 합작 형식으로 기존 소성로를 개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동 기업소의 3호 소성로를 거쳐 생산되는 시멘트는 내수용보다는 대외 수출용 제품으로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익금은 일정 기간동안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및 스위스 홀더뱅크사와의 지분 합의에 따라

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7년 10월에 동 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을 연결하는 총연장 5,570m의 대형 장거리 컨베이어 벨트 공사가 착공 2년 7개월만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운반과정의 수송애로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95~1996년의 연이은 홍수로 인해 탄광들의 출수현상과 붕괴사고가 빈번하고, 기초 대사량에도 미달되는 식량공급으로 탄부들의 작업능력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동 기업소에서 당장의 생산활동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는 1984년 4월에 착공되어 구 서독의 Humboldt사의 지원을 받아 1989년 4월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기업소가 위치한 평양시 상원군은 평안남도와의 함께 북한 최대의 석회석 매장지로, 교통도 편리하여 착공 당시 최적의 시멘트 공장 건설지로 손꼽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업소는 제3차 7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 기간에 건설된 가장 중요한 건재산업 시설로, 가장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일관공정의 특급 시멘트 기업소로 평가되고 있다.

동 기업소는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 이어 북한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이나, 현재까지 시설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업소는 원료투입에서 생산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원격 조종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은 기업소내에 위치한 탄광에서, 주원료인 석회석은 4km 가량 떨어진 인근 광산에서 공급되고 있다.

생산된 제품은 일반 시멘트인 포틀랜드시멘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멘트 생산 도중의 부산물은 칼리비료 제조에 이용된다. 이 기업소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상원'이라는 상표를 달고 내수용

으로 쓰이거나 수출되고 있는데, 수출용 상품은 남포항을 통해 중국, 홍콩, 스위스, 일본 등지에 수출된다.

1999년 10월에는 노동당 창건 54주년을 맞아 '명당 내화벽돌'(김정일 명명) 생산공정의 조업식을 개최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번에 건설된 공정은 평양시 상원군 명당지구에서 채취한 고회석(마그네슘을 추출하는 광물)을 가공하여 만든 '마그네샤크링카'를 원료로 하여 염기성 내화물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추정되며, 동 공정에서 생산되는 내화벽돌은 금속, 시멘트, 유리공업 등에 필수적인 각종 로(爐)의 내장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5. 남북한간 기술수준 비교

세계 시멘트업계는 채산성 악화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선진국의 경우 80년대에 들어와 노후화된 생산시설의 개체와 신증설을 기피하여 전반적으로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시멘트업계는 생산설비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신기술 도입과 지속적인 시설 개체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기존에 일부 낙후되었던 채광분야에서의 노동생산성과 원료처리 분야의 원료 균질화 및 원료분쇄 설비 등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멘트업계의 경쟁적 신증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1994년에는 세계 5위의 생산국이 되었고 수급상황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써 향후 국내 시멘트업계는 생산능력 증장보다는 슬래그시멘트 등 신제품 생산과 자동화 및 기술개발 확대 등의 합리화 부문에 대한 투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술개발 동향을 소성분야와 분쇄분야 그리고 주요 공정의 자동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성분야에서는 열효율이 떨어지는 기존의 설비를 NSP 및 New NSP 키른으로 개조 또는 신설하여 생산력 향상과 원료 및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분쇄분야에서는 Ball Mill, Turbo Separator 등이 Roller Mill, Cyclone Separator, Jet Vortex Mill 등으로 교체되고 있다.

Roller Mill은 Ball Mill에 비해 분쇄 매체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동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초고속 기류를 이용한 Jet Vortex Mill의 실용화로 소량 다품종 측면에서 시멘트 분말도의 미세분화에 의한 품질개선 및 다양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공정인 자동화 분야에서는 분쇄 및 소성공정 등 주요 공정의 자동화가 추진됨으로써 조업의 안정화를 실현시키고 있다.

북한의 주요 시멘트 제조 설비는 NSP 키른 2기(남한 37기), SP 키른 6기(남한 8기)로서, 현대화율(NSP 및 SP 키른 수/전체 키른 수)은 전체 시설 능력의 16.7% 수준으로, 남한의 93.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남한의 경우, 50~60년대에 습식·반건식을 도입한 이후, 70년대의 SP, 80년대의 NSP, 90년대의 고도화 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반면에 북한은 설비 대형화, 에너지 절감 및 자동화 측면에서 낙후된 습식, 반건식, 단순건식의 재래설비에 의존함으로써 남한의 70년대 중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품질면에서 북한의 시멘트는 유류와 공장 소모품 부족에 의한 잦은 키른 고장으로 품질의 안전성이 미흡하며, 남한의 시멘트에 비해 강도가 약하고 응결시간이 짧음으로써 장기조업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제품과 비교하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순천의 금강시멘트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1979년 제 35회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국제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제품으로, 동일한 품질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 6. 시멘트산업의 문제점

북한의 시멘트산업의 문제점은 풍부한 석회석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가 낙후되어 있고 시멘트 품질과 생산된 품질의 포장기술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첫째, 전체 키른중에서 SP 및 NSP 자동설비는 16.7%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설비의 낙후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설비의 대부분이 습식, 반건식, 단순건식 등 재래식이어서 열소모량이 높고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내화벽돌의 자체 제작으로 저급품이 사용됨으로써 장기운전도 곤란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질상태가 조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시멘트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에너지난으로 인해 키른의 정상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크링카의 소성이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응결시간이 약 6시간 20분으로 짧은 편이어서 장기작업에 불편하며, 압축강도는 KS 규격의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멘트 색깔은 노랑색에 가깝거나 옅은 회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포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크라프트지가 부족하여 생산품의 포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외 수출시 시멘트 제품의 규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레미콘 기술과 시설부족에 따른 시멘트

낭비와 공해유발 등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할 수 있다.

## 7.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남북한간 시멘트 부문의 협력은 높은 비중의 물류 비용과 내수산업이라는 시멘트산업 자체의 특성상 매우 부진한 편이다. 1999년 9월말 현재, 시멘트 부문의 남북교역 실적은 7.6만톤의 2,483.7만달러로, 총 교역액 20억 2,593.3만달러의 1.2%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경수조사사업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반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1995년까지의 반입액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향후 남한의 시멘트 수급은 주택 보급률의 향상 등으로 계절적 수급 불균형을 제외한다면, 균형의 안정화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멘트산업의 높은 물류비 비중과 공해유발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장의 남북경협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일(北日) 수교 협상 기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우

리 기업의 대북투자 확대 전망 등에 따르는 북한내 SOC시설 확충 기대로 시멘트 부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문의 중장기적 경협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자본과 장시간의 공장건설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일시의 건설 수요폭증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 합작 가능성을 고려해 볼만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지역내 새로운 시멘트 공장 건설보다는 우리 기술자들의 현장 기술지도 및 기술협력, 기존 공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체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는 동부지역의 순천과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와 해주시멘트공장이 유망할 것이다.

특히 순천과 상원공장은 다른 공장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시설 개체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해주시멘트공장과 함께 수송에 용이한 남포항과 해주항이 입지하고 있어 인천항으로의 운송에도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시멘트산업 뿐 아니라, SOC 시설에 대한 남북 협력방안을 모색할 경우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 시사 용어 해설 ✽

### ▶ 카지노 자본주의

정보통신 기술발달로 국제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수전 스트레인지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투기자본이 세계경제를 교란하는 것을 도박판에 빗대 표현했다. 국경없이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해 카지노 자본주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년동안 세계 경제는 이미 각종 파생상품을 둘러싼 헤지펀드들의 투기적 움직임이 몰고온 엄청난 영향력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지난 '92년 유럽 통화위기, '95년 멕시코 금융위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희생양은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스템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투기자본의 공습에 맞서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